

小白山 朱木群落을 지키는 官과 民 - 自然保全을 위한 政府 投資擴充을 -

좀 오래된 얘기지만 山行을 좋아하며 자연보호에 열성적인 세무대학 文炳恒교수는 3년전 小白山에 등반, 忠北丹陽군쪽에 있는 朱木의 군락지(당시는 보호철폐도 없었음)에서 朱木보다 더 왕성하고 무성한 활엽수들이 朱木을 덮어 버린 것을 보고 최소한 朱木보다 높은 다른나무의 가지만이라도 잘라주면 빛과 통풍이 잘들어와 수명이 연장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생겨 충북도에 걱정스러운 서신을 냈었다. 도에선 곧 정중한 회신을 보내왔다. 내용인즉 ▲천연기념물인 小白山朱木군락은 지금의 위치에서 朱木의 수령처럼 數百年동안 천연 그대로 自生하고있기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동안 잡목이 계속자랐다면 朱木은 벌써죽었겠지요. 그러나 朱木군락 附近의 산능선부에 자라고있는 나무들처럼 雜木도 어느정도 자라면 朱木을 더이상被壓시키지 않고있습니다. ▲그런 反面비료분을 공급하는 습도를 조절해주는 작용도 하게 될 것입니다. ▲天然紀念物은 文公部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 雜木除去등을 해야하며 적절한 관리계획 수립및 관리상태 點檢을 위해 每年 文化財관리국에서 生態學專門家로 하여금 現地조사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있습니다. ▲귀하의 서신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문화재관리에 좋은 의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충북도의 성의있는 답신내용.

요즘도 專門家들이 踏査하는지?

얼마전 본회사무국장을 찾은 文교수는 자기의 상식으로선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면서 “산소공급”조차안돼 朱木이 시들어가고있는 것이 안스럽다고 걱정. 小白山은 87년 12월 14일자로 建設部가 18번째 국립공원으로 지정고시하고 예산관계로 최근에 와서 비로서 관리사무소가 개설된만치 문화재관리당국과 협조 예산지원을 받아 철저한 관리책을 세워줄것을 기대.

현상황 보기전엔 말 못해

◇ 서울大農大林學科長 禹保命박사談

現在상황을 사진이나 눈으로 보기전에 는 판단하

기 어렵다. 朱木과 함께 自生하고있다면 생태학적으로 활엽수일것인데 어느나무이건 소중한 역할을 하고있을줄안다. 다만 피압상태등 자세한 내력을 관찰하기 전에는 무어라고 말하기 어렵다.

丹陽郡에서 계속 관리中

◇ 公園관리공단 小白山北部管理所 呂운석씨 談

국립공원구역내에 있는 朱木군락의 관리는 아직도 丹陽郡에서 관리하고있으며 관리인등 우리가 위임받은 것이없다.(註:黃漢秀소장은 다른전화통화중이었음)

地圖製作에 古地名併記를

地圖의 質的向上을 바란다

국립지리원이 심사한 「韓國道路觀光」(中央地圖刊)은 비교적 정확한 地名과 舊地名을 併記하고 있는데 市中에 나오는 거개의 地圖를 보면 너무나 쉽게 편집되어 歷史나 地名研究에 부적합한것이 많다고 不平이 많다. 예를 들어 智異山의 “배암사골”이 어느새 “뱀사골”로 변했는데 “달궁”이 뜻을 따라 “月宮”으로 된것이 있나하면音を 따라 “達宮”으로 된것도 있어 苦笑을 금치못한다. 더욱이 國土利用策과 댐建設로 埋立地와 水沒地區·새道路가 연달아 나오고 있는만치 舊地名(舊地名), 舊道路등의 表記가 없으면 歷史研究등에 混亂과 斷絶이 있을 것이라 우려된다는것. 더욱이 歷史的으로 研究해야할 곳인 全州李氏의 集姓村이었던 옛 「大廳마을」이 逸院洞으로 바뀌었으나 舊地名이 表示되지 않아 차츰잊혀지고 이제는 아파트團地로 변모했으니 歷史의 흔적조차 찾을길이 어렵다. 日本의 地圖를 보면 舊地名·舊道路가 모두 나타나고있다. 國立地圖院이나 監督機關에서 좀더 質 높은 地圖를 만들도록 당부해줄것을 바라고있다.

雪嶽山국립공원의 危險地帶 ?

아직도 으시시한 곳이 있다는데……

설악산의 무수한 봉우리를 오르내리는 것을 커다란 낙으로 삼고있는 서울원효로의 K씨와 연희동의

M씨가 들려주는 통보-2년전쯤 어느날 TV에선 小靑에서 喜雲閣대피소로 가는 도중에 無名의 白骨이 하나와 스님이 鎮魂祭를 지내기에 생각이 나서 알려준다고. K씨등 일행 수명이 86년 여름의 어느 무더운날 목이 말라 一同은 귀떼기 靑峰附近에서 우물찾기에 血眼이됐다. 갖고있던 發行所不明의 山行地圖를 펴보니 약간 南쪽능선 鞍部에서 西쪽에 우물 표지가 있어 옛길을 따라 百潭寺방향으로 한참동안 내려가니 석은 彈皮·彈倉·鐵帽·白骨등이 무더기로 나타나 으시시 무서워져 逃亡치듯 다시 元位置로 돌아왔었다고. 山行圖가 잘못되어 鞍部の 바로 東쪽 가까이에 우물이 있었기에 갈증을 면하고 寒溪嶺쪽으로 돌아왔었다한다. 그런데 10년전인 78년 어느 山行初心者가 귀떼기靑峰아래의 어느地帶에서 물을 찾아해매다가 白骨의 무더기를 보고 혼비백산하여 도망치듯 그곳을 벗어났다는 얘기를 들은적이 있었는데 이곳은 山行전문가들은 다니지 않는곳이기에 이제까지 發見되지 않고있는 地帶라는 설명이다. 설악산관리사무소는 작년에 軍당국과 환경청의 협조로 지각없는 山行者들이 더럽힌 大靑峰의 10년묵은 쓰레기를 깨끗이 치웠는데 아직도 主人모르는 白骨의 더미가 通報者의 말대로 尙存하는지 철저히 수색하여 當局협조로 하루속히 이들遺品과 危險物이 깨끗이 淨化되어 밝고자랑스러운 國立公園이 되도록 비는 마음 간절하다.

아래는 6·25의 遺品이 있었다고 指摘한 地點이다.

大靑峰의 保護와 한계령停車문제 보호를 위해 登山路利用을 바라

언젠가 麻浦에서는 K씨는 장문의 독자투고를 모 일간신문에 보냈다고 귀뜸. 그 신문은 교통부서관내 용이기에 이첩한다고 회신했고, 교통부는 江原지사에게, 최종권한자인 江原지사는 寒溪嶺市外버스 정차장 설치는 예산문제와 행정적으로 공간확보가 어렵다고 답해와 실망했다고 푸념. 서울에서 大靑峰등반을 예정하는 등산객들은 장수대관리분소가 있는 장수대정류소는 멀다해도 大靑峰과 가장 가까운 温泉이 있는 五色관리분소인근의 정류소를 이용하면 一泊을 더하게된다는 이유로 寒溪嶺쪽에서 올라가기를 무척 원하고있어 이것이 문제점.

등산객들은 寒溪嶺에서 오르면 가까와, 등반스케줄이 단축된다고 주차허용을 원하고 있으나 五色정류소쪽에서 오르는것이 가깝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K씨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선 한계령 휴게소 경영권자와 독점노선운수권자의 불화에 행정당국이 말려 국민편의가 의외당한것 같이 보일수도있으나 관리분소가 있는 五色정류소쪽보다 한계령쪽에서 오르면 간섭안받고 입장권도 안사고 경관을 조망하면서 오를수있다는 일거3득이 있기 때문일것이라는 오해를 받기 쉬운일. 더욱이 大靑峰등반은 산불예방과 자연보호를 위해 매년 봄 3월 1일~5월31일까지와 가을철은 11월1일~12월15일까지「등산로 出入」을 금지하고있는 만치 아무데서나 大靑峰으로 오른다는 것은 정녕 大靑峰을 아끼는 분들은 自進삼가해주길 빌뿐. (通文子)

